

모성권 강화 서포터스

5월 20일,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무슨 일이?



함께해요! 여성 장애인 행복 파트너: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맘(Mom) 누리" 성과보고회



2022년 5월 20일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초기양육환경조성사업 "맘누리" 성과보고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경북신문

성과보고회 순서

성과보고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부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 축사

2부

- 경과보고
- 홍보영상 상영
- 성과보고
- 우수사례 발표
- 참여자 소감 발표
- 연구보고 (지적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매뉴얼
연구)
- 폐회

참석인원

참석인원: 총 200명 (대면 145명, 비대면 55명)

- 초기 양육 환경 조성사업 대상자 및 가족:

34명 (대면: 10명, 비대면 24명)

- 현장 실무자:

136명 (대면: 105명, 비대면: 12명, 유튜브: 19명)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

- 도내 대학교 교수 및 학생:

30명 (대면: 30명)

- 기타 여성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는 도민 등

현장에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장애인 단체 및 기관장, 실무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참여도 진행했습니다

초기양육환경조성사업

"맘(Mom)누리" 사업내용

- 초기양육환경조성사업 '맘(Mom)누리':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 여성장애인 모자의 건강지원,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한 맞춤형 1:1교육 등 양육 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임신 중 또는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
- 지원내용:
 - 산모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산전·후 케어비 지원
 - 심리정서지원
 - 집단 및 1:1 양육 교육
 - 임신·출산·육아용품 지원 등

"맘(Mom)누리"

성과보고회 추진 배경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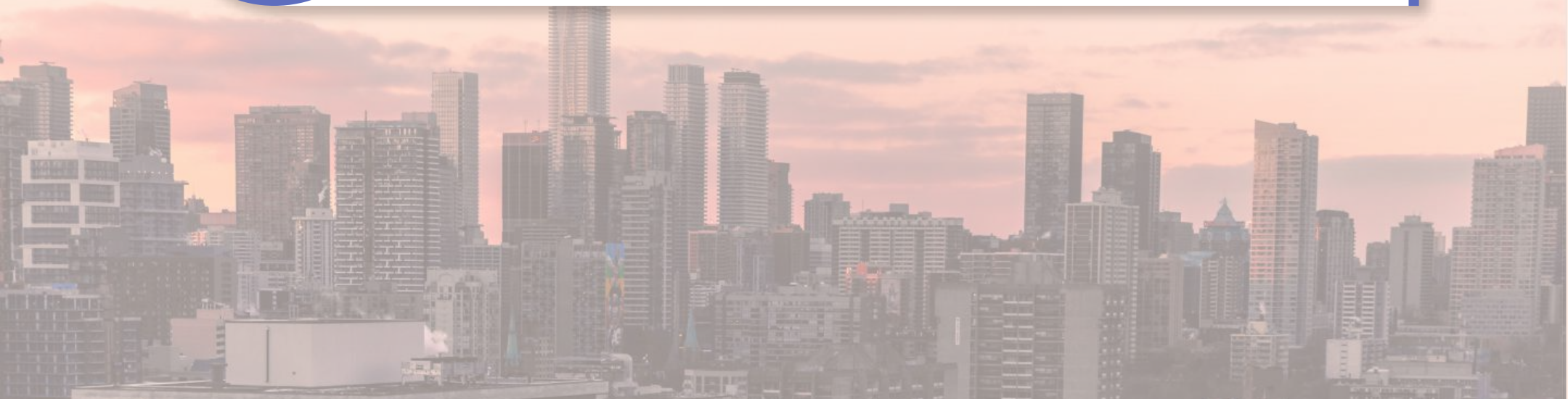
전국 최초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초기양육환경 조성사업 진행을 통한 추진성과를 공유하여
도민의 관심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02

학계 및 전문가 집단 구성을 통한
사업 성과 분석 및 매뉴얼 개발, 배포

03

대면, 비대면 성과 보고회 병행을 통한
사례와 연구성과 공유



"맘(Mom)누리"

성과보고회 추진 내용

01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초기환경조성사업
3개년 경과 보고

02

우수사례 발표

03

지적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매뉴얼 연구 발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한마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여승동 관장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유익한 기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행복재단, 사업에 협조해 주신 대상자와 보호자, '지적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지원 매뉴얼' 연구를 맡은 연구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를 위한 길잡이의 역할이 되길 바라며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빛나는 꿈을 꾸고 있는
그 이름, "엄마".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경상북도여성장애인 복지관과
여성장애인 모성권 강화 서포터즈가
함께 하겠습니다

